의 안 번 호	제 695 호
의 결 연 월 일	2024년 9월 11일 (제420회)

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

제 안 자	건설환경소방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9월 5일

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

의안 번호	695

제안연월일 : 2024. 9. 5.
제 안 자 : 건설환경소방위원장

□ 주 문

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를 건의한다.

□ 제안이유

○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, 여기에 단양천 댐이 포함되었음.

○ 단양천 댐 건설을 계획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, 후보지를 먼저 발표한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것으로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임.

○ 단양은 과거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의 경험을 가진 지역으로, 단양천 댐이 건설되면 수몰 지역 확대에 따른 인구소멸,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을 수 없음.

○ 단양천 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지역관광산업이 밀집된 선암계곡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,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임.

○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건의함.

□ 보내는 곳 : 대통령, 국회의장, 국무총리, 환경부장관, 국회 환경노동위원장

붙임 건의안 1부.

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

건 의 문

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. 극한기후로 인한 홍수·가뭄 피해를 막고, 용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.

그런데 여기에 단양천 댐이 포함되어 충북도민을 혼란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.

누구도 요구한 바 없는 단양천 댐 건설을 계획하면서 환경부는 단 한 번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. 단양천 댐 건설로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주민들임에도 환경부는 후보지 발표를 먼저하고,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합니다.

이는 지역주민은 무시한 채, 댐 건설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절차의 정당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

게다가 단양은 과거 충주댐 건설로 인해 군청 소재지를

포함한 167만 5천 평이 수몰된 경험을 가진 지역입니다. 이 때문에 2,684세대가 이주하는 등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겪었고, 경제기반이 무너져 내려 단양은 지금 인구감소지역 및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.

단양천 댐이 건설되면 댐 예정지로부터 상류 3.8㎞까지 수몰 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고, 이에 따라 인구소멸, 나아가 지방소멸의 가속화는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.

또한 단양천 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은 선암계곡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, 여기에는 단양팔경 중 3경인 상선암, 중선암, 하선암이 있습니다.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하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역관광산업이 밀집한 곳이기도 합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선암계곡이 수몰되어 단양팔경을 단양'오'경으로 만들고,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뻔한 단양천 댐 건설에 찬성할 지역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

실향의 슬픔과 이주의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수몰로

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에게 그 슬픔과 고통을 다시 한번 겪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단양천 댐입니다.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,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것이 바로 단양천 댐인 것입니다.

환경부가 이 같은 점을 인식하였다면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를 선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

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164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**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**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.

2024. 9. 11.

충청북도의회